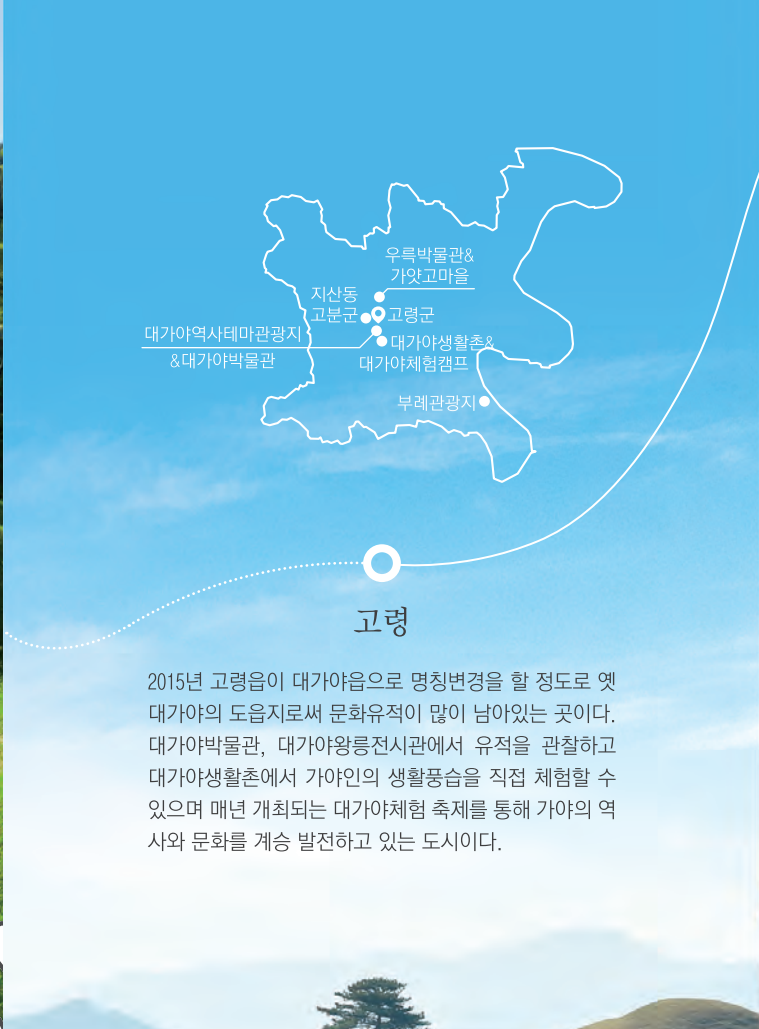




가야의 재발견  
**디스커버리 가야**  
고령·성주·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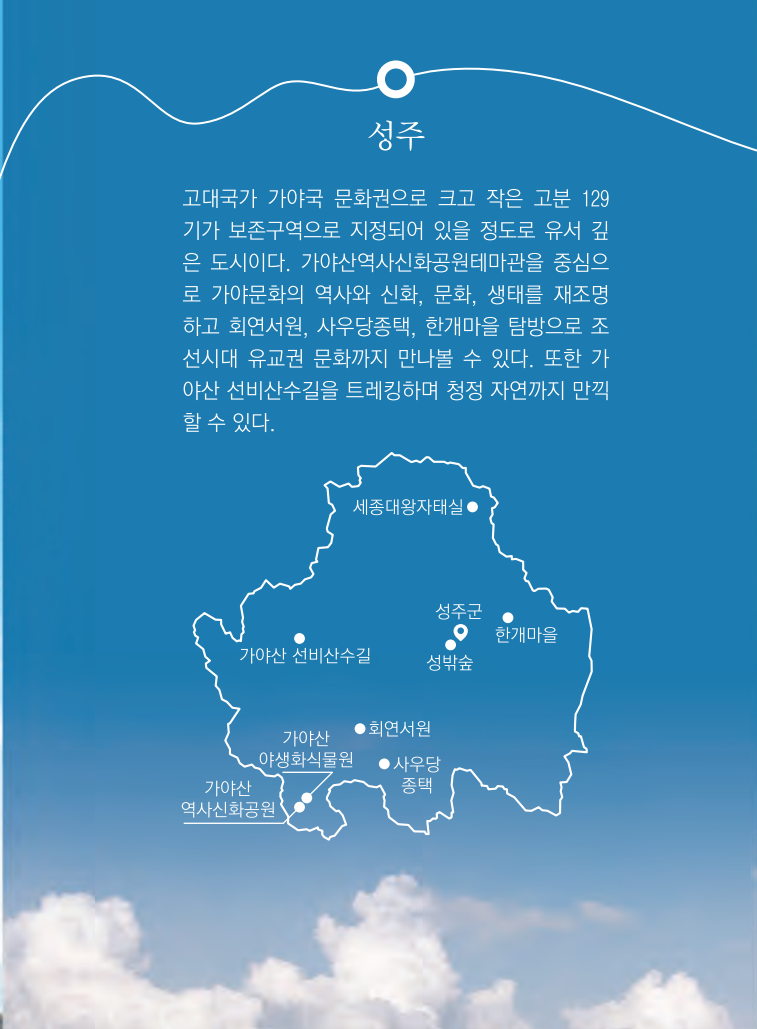


고령

2015년 고령읍이 대가야읍으로 명칭변경을 할 정도로 옛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왕릉전시관에서 유적을 관찰하고 대가야생활촌에서 가야인의 생활풍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대가야체험 축제를 통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지산동 고분군



성주

고대국가 가야국 문화권으로 크고 작은 고분 129기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도시이다. 가야산역사신화공원테마관을 중심으로 가야문화의 역사와 신화, 문화, 생태를 재조명하고 회연서원, 사우당종택, 한개마을 탐방으로 조선시대 유교권 문화까지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가야산 선비산수길을 트레킹하며 청정 자연까지 만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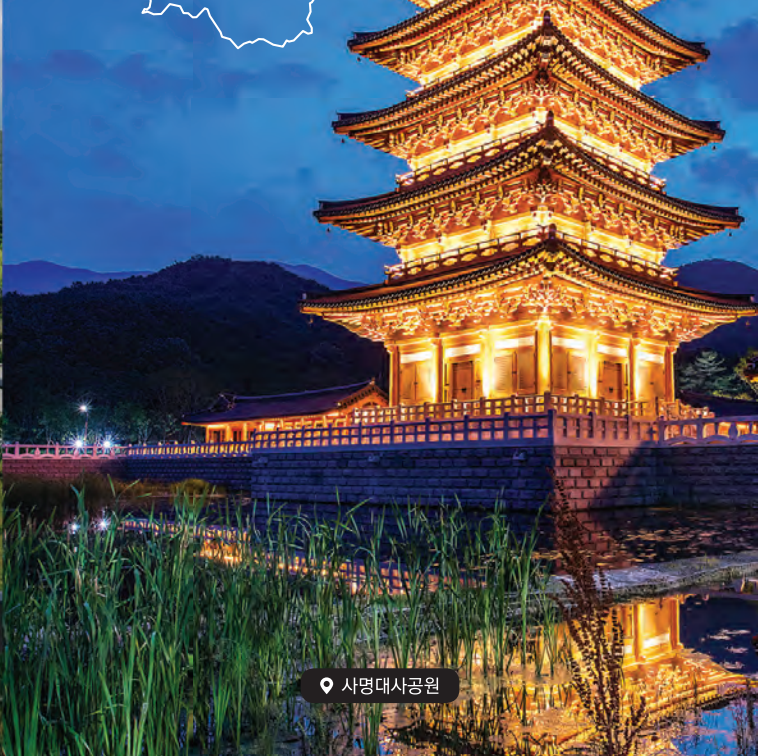


가야산역사신화공원



김천

경북 남서부에 위치한 김천은 인구 14만의 도시로 동쪽으로는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영남팔경의 금오산과 서쪽으로는 울창한 수림과 곳곳에 폭포와 소를 이루는 황악산이 자리한 곳이다. 최근 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사령대사공원을 비롯해 직지사, 부항댐 레인보우지이며, 출렁다리 체험 등 역사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이다.



사령대사공원



가야의 재발견  
**디스커버리 가야**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한반도 남쪽 낙동강 유역에 존재했던 찬란했던 고대문명인 가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가야문화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고령의 대가야, 성주의 정견모주 등 가야 역사를 공부하고 김천의 자연을 체험하는 테마 프로그램을 통해 가야를 재발견해보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건축된 시설로 경북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경북여행 전 미리 확인하세요!



